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반도체 실적 우려, 외국인 대량 매도. 언제까지 지속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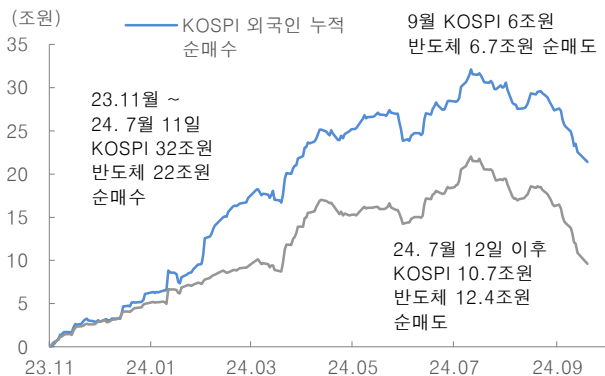
- 미국 금리인하에 미국 증시 사상최고치 경신, KOSPI 2,600선 반등도 힘겨워
- KOSPI 부진 1) G2 경기불안, 2)반도체 업황/실적 불안, 3) 외국인 대량 매도
- 26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10월초 삼성전자 실적 가이드런스 공개가 중요 변곡점

미국 연준이 9월 FOMC에서 50bp 기준금리 인하(Big Cut)를 단행했다. 금리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것이다. 향후 경기흐름에 따라 위기대응인지, 선제적 대응인지 결정 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연착륙 시나리오 안에서 경기, 고용 불안을 조기에 제어 하기 위한 선제적 금리인하라고 판단한다. FOMC 다음날 미국 고용개선에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다우지수와 S&P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KOSPI는 2,600선 회복도 힘겨운 상황이다. 8월 5일 저점대비 회복세를 보였지만, 7월 11일 고점(장 중 기준 2,896.43p)대비 10% 이상 낮은 것은 물론, 8월 고점과도 100p 이상 레벨다운되어 있다. 9월에도 KOSPI는 일본, 중국과 함께 글로벌 주요국 증시 중 월간 수익률 기준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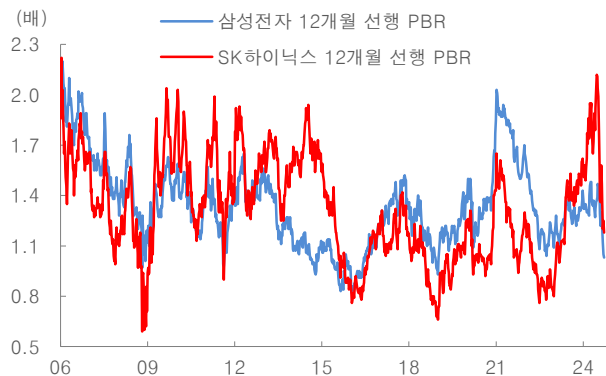
KOSPI 부진의 매크로적인 원인에는 G2 경기불안을 들 수 있다.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은 경기 침체 공포가 유입되었고, 중국은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9월말 ~ 10월초 중국 PMI, 미국 ISM 제조업/서비스업 지수, 고용지표, 10월 1일 9월 수출입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반등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KOSPI는 여전히 경기 불확실성을 선반영한 Deep Value 구간에 위치해 있다.

특히, 9월 KOSPI를 억누르고 있는 주된 이유는 반도체 업황/실적 불안과 외국인 대량매도라고 본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7월 12일 이후 10.7조원 이상 출회 중인데, 9월에만 6조원 가까운 매물이 출회 중이다. 반도체 업종으로 7월 12일 이후 12.4조원, 9월 6.7조원의 외국인 매도가 출회되고 있다. 외국인 KOSPI 매도가 아니라 반도체 매도인 것이다. 23년 11월 이후 7월까지 외국인 순매수가 반도체에 집중되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다. 9월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반도체 매도가 출회된 데에는 G2 경기불안도 있지만, 반도체 업황/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삼성전자 선행 PER은 9배 초반, 선행 PBR은 1배 근접했고, SK하이닉스 선행 PER은 5배 하회, 선행 PBR은 1배 초반으로 내려앉았다.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점권에 근접한 것이다. 26일 마이크론 테크놀러지 실적 발표와 10월초 삼성전자 실적 가이드런스 공개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KOSPI 가 아닌 반도체를 매도하는 중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Deep Value 구간 진입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